

팔영산 전설·설화 발굴 관광자원화

고흥군 내달까지 2개월간 자료 수집 유적·문화자료 등 문화유산도 발굴

#조선 중기 송팔영 장군이 젊어서 팔영산에서 무예를 닦을 때의 일이다. 송 장군은 자신의 백마와 화살 중 누가 더 빠른가를 시험하기 위해 팔봉(八峰)에서 접안면 신안리 옥가마를 뒤쪽 야산의 고인돌을 향해 활 시위를 당겼다.

송 장군은 백마를 책찍질해 고인돌에 도착했지만 화살이 보이지 않자 말의 목을 썼으나 뒤늦게 화살이 도착했다. 80의 노령에 팔영산에 오른 송 장군은 '팔영팔십에 팔영하니 팔

영은 늙지 않고 팔영만 늙었노라'라는 시를 읊는다.

#능가사 동편 안양동 계곡에는 '류정승 피난굴'이라는 자그마한 굴이 있다. 고려때 류정승이 10살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굴로 피난을 왔다가 왜적이 어머니를 해치려 하자 죽을 각오로 대저하니 왜적이 효성에 감동해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고흥군이 팔영산(해발 608.6m)에 얽힌 전설과 사건 등 다채로운 이야기 거리를 집중 발굴해 관광자원화한

다.

고흥군은 "팔영산 곳곳에 서려있는 이야기들이 잊혀져 가고 있어 문화유산 발굴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화해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수집은 현장의 유물·유적답사와 각종 문화자료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구전(口傳)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군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팔영산 인근마을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활용해 면담과 현장답사를 통해 자료를 모을 계획이다.

팔영산은 중국 위왕(魏王)의 세수대 안에 비친 여덟 봉우리의 신비로운 전설을 비롯해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선 의병들이 은거하고 있던 만경암, 팔영산 빨치산, 기우제를 지낸 '천짓등', 호남 4대 사찰로 꼽히는 능가사 등 많은 유적과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군은 이번에 수집된 자료를 통해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팔영산은 자연 휴양림과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 등 자원이 산재해 연간 12만여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다.

고흥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6월에 책자로 펴내 각급 학교와 탐방객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경희기자 gjju@



"생신 축하드립니다" 순천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빛마을(원장 진정현) 생신 위안잔치에서 어린이들이 빨리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호 순천 지역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시지사, 원광대 순천 헌병병원 등이 함께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여수수협 어관장 경매 5일만에 재개

해경 "외상 경매 수사 중단" 수협 "정관개정 등 대책 마련"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째 중단됐던 여수수협 어관장의 수산물경매가 29일 새벽 재개되면서 일부 정상화됐다.

29일 여수수협에 따르면 여수수협 최영환 조합장은 지난 27일 여수중매인협회와 회의를 통해 '경매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위관손실이 심각해진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 설득에 나서 종전대로 경매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경매에는 25명의 중매인이 경매에 참여, 외골이 1척·쌍골이 2척 등이 내놓은 수산물 1억5천만 원 가량이 거래됐다.

이날 경매에는 한도를 초과한 일부 중매인들도 경매에 참여했다.

여수수협 관계자는 "경매를 무한정 중단할 경우 생산자와 중매인, 노조, 소매상 등의 손실이 겹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 종전대로 일단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매를 해나가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수협 어관장의 경매 중단사태는 지난 23일 여수해양경찰서가 중도매인들이 담보나 보증금 없이 외상으로 600억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은 혐의로 수합직원 6명과 중도매인 5명을 각각 특가법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수협과 중도매인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이 같은 경매방식에 대해 해경이 범법행위로 처벌하자 더

이상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판단, 경매 중단을 선언했다.

초유의 경매 중단으로 하루 4억~5억원의 위관과 손실과 수협 예금인출사태 등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미치자 해경과 수협이 협의에 나서 수협은 외상경락한도를 명시하는 등 수협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또 해경은 수협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광명길 여수해경 서장은 "여수수협이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어민들의 딱한 사정도 감안,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섬진강변
벚꽃 추억 만드세요**

내달 3·4일 축제...다채로운 행사

'제7회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가 다음달 3·4일 구례군 문척면 죽연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오산과 섬진강의 만남, 벚꽃과 함께하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3일 구례 좌도농악 길드임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섬진강변 벚꽃 노래자랑이 진행된다.

4일에는 댄스 비보이(B-boy)공연, 국산도·태권무 시연, 록밴드공연, 추억의 7080 콘서트가 펼쳐진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내 고장 문화재 그리기, 페러글라이딩 대회와 섬진강변 벚꽃길 트레킹, 오산사랑 등산체험, 벚꽃 마이피플만들기, 지리산 야생화 안화제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마련된다.

향토음식 코너에서는 향긋한 봄나물과 산채비빔밥, 도토리묵, 다슬기수제비 등을 맛볼 수 있고, 농·특산물 판매장터에서는 마을주민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울촌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주민 반발

대책위 "환경 오염 주민 생존권 위협"

여수 울촌산단 인근 주민들이 울촌 1산단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울촌산단 지정폐기물 확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현)는 29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촌 제1산단단지내 입주한 H사가 최근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기존 25만에서 360만규모로 15배 이상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역민의 생존권과 지

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의 15배 확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로 인해 급증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환경오염과 지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존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H사의 지정폐기물 확장 추진과 광양반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울촌 제1산단단지내 10블럭에 위치한 H사는 지난 2006년부터 폐산과

침몰 1년3개월 이스턴브라이트호

여수시 선사측에 조속 인양 촉구

침몰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에 대한 인양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유독물질인 질산을 실고있다 여수 해역서 침몰,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이스턴브라이트호(1천300t)에 대한 인양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여수 삼산면 백도 해역에서 질산 2천700t을 실

고 항해중 침몰한 이스턴브라이트호에 대해 '인양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관련 선사에 보내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스턴브라이트호 침몰 사건은 유독 물질인 엄청난 양의 질산과 연료유가 바다에 수장돼 심각한 해양오염 등이 우려됐으나 질산은 지난해 7월 전량 육지로 옮겨지는 데 성공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동안 이것저것 기대했다가 실패만 컷기에 큰놈을 보고도 혹시나 반신반의 하여 사용해 봤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용즉시 불온 일어서며 잠시간 지속되니 쫓겨나 생시인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할기부전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해도 피부 같은 촉감에 달콤이 모양 같은 실리언이 처음 보는 것이라 주사내 약도 아니고 빈

지 같은 링이나 진공펌프도 아닌 신체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타나게 날개 뜰어 나가고 있다. ※기구를 선택하지 않는 분은 허준의 꿈, 파워마카 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구매시 핫나경 서적이 없는 것은 유상품입니다. (주)글로벌 핫나경 www.핫나경.kr 99.000원 동산판매처:신곡동 제1188호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www.핫나경.kr (G-FLOW)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의 최대 고민해결! 중간에 사들거나 강박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른...본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www.핫나경.kr

상담전화 농협 301-0036-8883-71 (주)글로벌 핫나경 동산판매처:신곡동 제1188호
1577-4101 010-8952-4114
1588-4102 010-8558-4114

무지본 / 무점포 / 고속

사업자 모집(남·여)

사업명 : 전화정보(ARS), 음성정보, VOIP등

폐사는 지난 1998년부터 13년동안 위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광주,전남 유일의 발전번호(등록번호 140014호)를 통한 전화정보(ARS) 사업자로서 (KT, Dacom, Onselecom 등) 공인 신규 사업진행과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폐사와 함께 사업에 동참하실 의욕있고 근면성실한 남·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역요건 : 음성정보 (ARS)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기존 사업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사업분야 : 060전화정보서비스, 선불형 전화정보서비스, 기타VOIP유형 ARS시스템(장비)무요제공, 전화정보 회선 설비 제공, 서비스 번호 무료제공, 고객관리 Program 무료 제작지원 및 관리, 마케팅 노하우 무료전수, 기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

*사업참여자가 많을시 별도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
*차세한 내용은 문의 요망

NTOOS
(주)엔투오스

문의: 1588-3533 / 010-3608-2888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45-17번지
www.ntoos.com

한국부동산컨설팅

■ 매곡동 4층건물

- 건평 100평 / 대지 250평 (매매가 9억9천) 대출 9억 1억으로 인수 가능 (정형외과적합, 요양병원, 학원...)

■ 1만평 규모 토지

(풍암지구 수완지구 보유)
-골프 연습장, 대형교회, 법인학교 적합

- 원룸, 상가, 건축부지 급매물 또는 경매로 맞춰드립니다.
- 병원, 교회, 노인병원 부지 너무 좋은게 있습니다.
- 창고용지, 공장부지 시세 50%로 물건있습니다.
- 마트자리도 찾아드립니다.
- 경기가 안좋다보니 우량물건이 많이 있고 제 물건이 맘에 안들시 고객이 맘에 들때까지 찾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농성동 641-5 서구청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

회사매각공고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